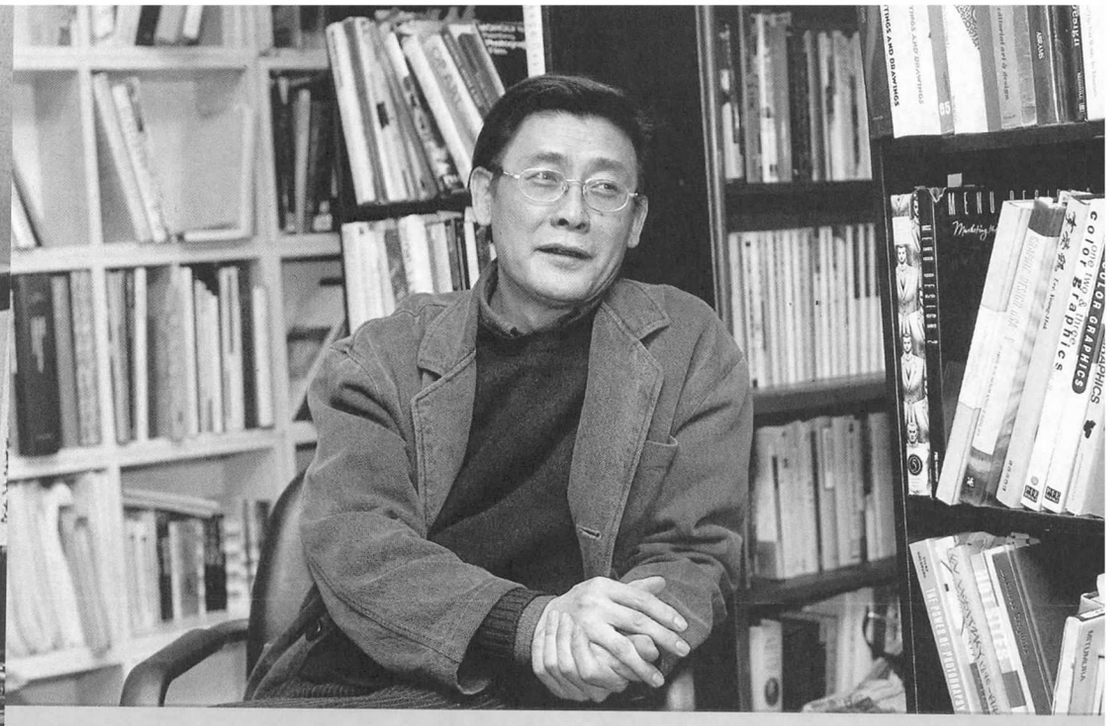


서가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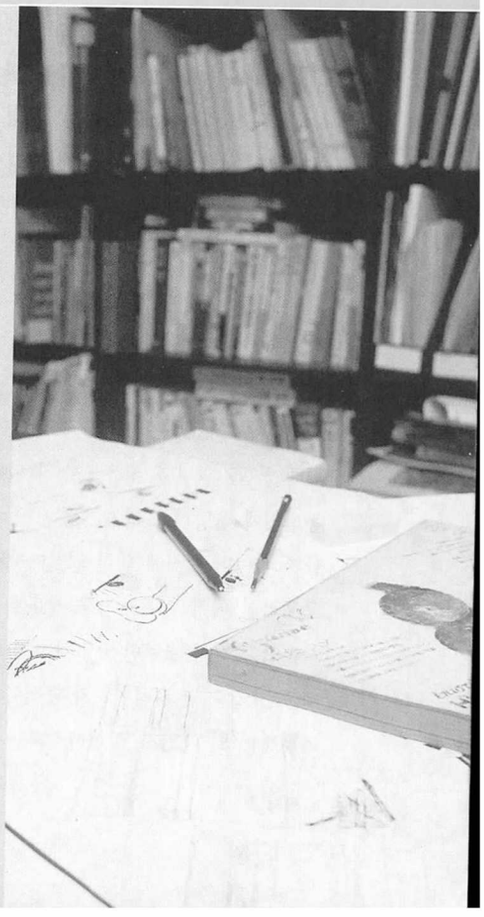
활자책의 마력이 살아있는 창작의 산실

북 디자이너 정병규씨의 서가

젊음과 예술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홍대 앞 거리에 자리한 정디자인실(대표 정병규). 생업의 현장인 사무실 한켠에 자리한 서가에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다. 책에 생명을 불어넣는 창작의 산실답게 먼저 디자인 관련 책들이 눈길을 끈다. 성냥갑보다 작은 것부터 혼자 들기 벅찬 시리즈까지 다양한 형태의 책들은 정병규씨가 디자인 세계에 뛰어들기 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모은 것으로, 대부분 세계 디자인사에 남을 만한 귀중본들이다.

맞은편 서가에는 그가 20여년 넘게 만든 책들이 꽂혀 있다. 그의 초기 작품인 한수산의 《부초》를 비롯해 장르를 망라한 단행본과 잡지들이 낯익은 얼굴로 반긴다. 그가 지금껏 만든 책은 3천여종. 웬만한 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그의 숨결이 담긴 책과 만나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서가는 단지 책을 꽂아놓는 곳만이 아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책은 붉은 펜으로 이런 저런 표시를 해놓았고, 어떤 책은 낱장이 여럿 접혀 있다. 또 어떤 책은 갈피마다 불긋불긋한 서표(書標)들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징표에서 그의 섬세한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책에 '격'을 부여하는 작업이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입니다. 책에 격을 부여하는 방법은 책과 대화하는 것이죠. 세계 디자인사에 남을 만한 책들을 수집한 것도 책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서가에는 책 디자인의 한길을 걸어온 그의 자취가 녹아 있다. 삶의 현장이자 세계 책 디자인의 보고인 그의 서가에서 21세기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활자책의 마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 오완진 기자